영어어문교육 *제19권* 4호 2013년 겨울

이러닝 영어학습에서 페이스북을 활용한 보충학습 교수-학습 설계 및 효과성 연구

김 희 진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곽 정 아
(한국외국어대학교)

Kim, Hijean & Kwark, Jungah. (2013). The Development of a Supplementary Facebook Learning Model at a Cyber University.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9*(4), 237-260.

This paper aims to 1) describe the design of a supplementary learning model by incorporating online learning and Facebook for a Basic English Reading and Speaking course at a cyber university, 2) investigate students' perspectives on this model and 3) determine effectiveness of the model. A total of thirty nine students from a cyber universitie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 mixed methods approach was employed to analyze the collected data, including pre- and post-tests, pre- and post-survey questionnaires, mid-term and final exam results, interviews, and qualitative data from student homework messages on Facebook.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is model was designed by the principle of progressive learning and integrative English learning; 2) the students' perspectives on using Facebook as a supplementary to the course were positive, and they considered it interesting and useful for learning English collocations; 3) the participants showed some improvements in collocation learning. Based on the findings, implications and useful instructional strategies are provided for future research.

[online learning/Facebook/smart learning/blended learning, 온라인러닝/페이스북/스마트교육/블렌디드러닝/혼합러닝]

I. 서론

인터넷의 도입으로 전 세계가 혁명적인 변화를 겪으면서, 이러닝(온라인 학습)은 전통적인 면대면 학습의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개방형 학습체제로, 1) 학습자에게 통제권을 부여하고 능동적인 참여자로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강조하였으며, 2) 웹 기반 학습공동체를 통한 협동학습과 다양한 정보와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열린 학습환경을 구축하였다(Horton, 2001; Kearsley, 2000; Romiszowski& Mason, 1996).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러닝은 상호작용과 몰입의 어려움, 교수와 동료학습자의 실재감 부재로 교육적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 또한 받고 있다(권성연, 2011; 김규동, 고유정, 최고은, 박인우, 2012; 김정주, 임지연, 2010; Levy, 2007; Parker, 2003; Picard, 1997; Swan & Shih, 2005). 특히, 사이버대학에서는 이러닝이 직면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사이버대학원의 설립 이후 온라인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있으며, 학습 동기가 높은 학습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이러닝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국내 일부 사이버대학(원)에서는 Computer Mediated Communication 강의(화상강의)를 제공하거나, 온라인 강의와 병행하여 오프라인 특강을 진행하는 블렌디드 러닝,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학사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10년 사이, 웹2.0 패러다임과 스마트 테크놀로지를 이러닝에 활용하는 연구들(김선진, 2007; 방미향, 2007; Lee & McLoughlin, 2009; Thomas, 2009)이 소개되었다. 스마트러닝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를 통해 학습자는 주변세계와 의사소통을 하고, 지식과 정보를 공유·확대·재생산하며,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SNS는 이러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SNS를 교육적 도구로써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는 최근 들어 주목 받기 시작했다(조세경, 2011; 박혜정, 김지영, 2011; 임걸, 2010; Balcikanli, 2012; Chen & Bryer, 2012; Harrison & Thomas, 2009; Hsu & Ching, 2012; McCarthy, 2010; Ractham & Firpo, 2011; Shih, 2013, 2011; Yeun & Yeun, 2008). 해외에서는 오프라인 대학에서 SNS를 활용하는 수업 사례연구를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교수-학습모형을 설계하고 효과성을 검증하는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교육공학이나 교육학 분야를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는 단계로, 실험연구 보다는 대부분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는 정도(김월선, 2012; 장진원, 2011; 조윤경, 2011)에 그치고 있다. 그러므로, 실증적으로 해당 모형이 적용된 자료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국내의 영어교육분야에서는 스마트러닝이나 SNS를 활용한 교수학습모형의 제시나 실험연구 모두 극히 제한적인 상황이다. 또한, 사이버대학이나 이러닝 영어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SNS 활용 블렌디드 러닝 수업 디자인 역시 전무한 실정이다. 사이버대학 학습자들은 대부분 직장인이어서 오프라인 수업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기존의 온라인-오프라인형태의 블렌디드 학습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닝 환경 하에서, 페이스북을 활용한 보충학습이 동료학습자와 교수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퀄리티 교육을 요구하는 이러닝 학습자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실험적으로 고찰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하고자 한다. 즉, 과거의 온라인-오프라인의 혼합방식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온라인-SNS 혼합을 통해 이러닝 영어학습의 새로운 블렌디드 교수-학습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는 SNS를 혼합한 수업이 효과가 있는지, 현실적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사이버 대학의 정규 영어과 온라인 강의에서 보충학습의 개념으로 페이스북을 활용하는 교수-학습 모형을 설계하고, 학습자 태도와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데 있다. 모바일 러닝에서 제공하는 콘텐츠의 경우 기기의 특성과 학습자의 집중시간이 다소 짧다는 것을 고려하여, 본 논문의 페이스북 보충학습 콘텐츠는 간단하지만 점진적 발전이 있는 학습활동을 다양하게 구현하였다. 영어의 다기능인 듣기, 읽기, 쓰기, 어휘의 통합적인 (integrative) 반영을 위해 iMovie와 Windows Live 무비메이커를 사용하여 동영상을 제작하였으며, 어휘와 표현학습 자료의 경우 진정성(authentic)있는 표현을 위해 웹 코퍼스 툴인 WebCorp[1]를 기준으로 빈도(frequency)가 높은 어휘와 그 패턴을 실제 반영하였다. 본 논문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사이버대학 강의의 현실적 제약 속에서 페이스북을 활용한 모바일 영어보충학습 교수-학습모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연구문제 2. 페이스북을 활용한 모바일 영어보충학습이 학습자의 어휘능력, 정의적인 요소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연구문제 3. 페이스북 모바일 영어학습 학습자들의 인식 및 태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페이스북

Web 2.0과 모바일 기기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SNS는 현실세계에서 맺는 사회적 관계를 온라인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로 사용자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소통을 가능케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이종연, 2012; 성진희, 전주성, 2012; 진현승, 2011; 차승봉, 2011). 페이스북은 2004년 Mark Zuckerberg에의해 출범한 이래로 2012년 10월 사용자 수 10억명 돌파라는 기록을 세우며 전 세계적으로 이용자수가 가장 많은 SNS로 자리잡았다. 페이스북의 구성 영역은 크게 네 가지로, 1) 개인 프로필과 일상을 남기는 '담벼락', 2) 최신 포스팅을 모아서 볼 수 있는 '뉴스피드', 3) 특정 목적이나

[1] WebCorp는 영국 Birmingham City University에서 개발한 웹 코퍼스 프로그램으로 Google이나 Bing을 기반으로 찾고자 하는 표현을 포함한 모든 웹 페이지의 리스트와 예문, 연어패턴을 제공하여 학습자들에게 가장 실제적이고 진정성(authentic)있는 영어문장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준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공통관심사를 바탕으로 사적이고 개별적인 공간인 '그룹', 4) 기업이나 제품의 홍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페이지'가 있다(윤영민, 2011).

이 중에서, 학습도구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그룹' 기능은 제한된 학습자에게 양질의 학습을 제공, 함께 공유하며, 그룹 내 활발한 상호작용과 협력학습으로 집단지성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페이스북의 이러한 범용성에 기인하여 SNS 학습에 적용하였다.

2. 페이스북의 교육적 활용

페이스북을 교육매체로 활용하고자 하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크게 1) 페이스북의 참여자 특성 및 사용양상의 조사와 관계 규명, 2) 페이스북을 활용한 교수-학습모형의 설계, 3) 페이스북을 활용한 실험연구 및 설문조사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학습자특성과 사용양상을 조사하는 연구로는 Junco(2012)의 페이스북 사용빈도 및 참여도와 수업활동의 관계성 연구가 있으며, Ross, Orr, Sisic, Arseneault와 Simmering(2009)은 캐나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페이스북 사용자특성과 참여도 차이를 규명하고 학습자 특성 변인을 제안하였고, Lampe, Ellison과 Steinfield(2008)는 미시건 주립대학교 학습자의 페이스북 사용양상, 학습자인식과 페이스북에 대한 태도 변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내 연구로는 김가람(2012)이 한국어 학습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언어의 형태와, 글의 내용, 형식을 분석하였으며 조세경(2011)은 대표적인 SNS 4가지(페이스북, 트위터, Orkut, Livemocha)를 선정하고 이를 활용한 수업 사례를 소개하였다.

둘째, SNS를 활용한 교수-학습모형을 설계하거나 효과적 모형설계를 위한 제안에 관련된 연구로는 김월선(2012)이 소셜러닝을 목적으로 페이스북을 활용하여 웹프로그래밍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모형을 설계하였고, 이상수, 강정찬, 오영범, 이유나(2011)는 학습자의 SNS 행동패턴과 참여동기를 분석하여 SNS를 활용한 수업 설계 시 필요한 원리들을 소개하였다. 진현승(2011)은 SNS를 활용한 교수-학습 모형 설계 시 매체의 유용성이 학습자 몰입과 실재감 향상에 유의미한 영향을 줌에 따라 다양한 수업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Fewkesd와 McCabe(2012)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중등학교 교사와 학습자가 인지하는 페이스북의 교육적 활용을 조사한 결과, 교사와 학교기관은 상대적으로 페이스북에 부정적 인식을 보여 수업 내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용을 장려하였다. Kabilan, Ahmad 와 Abidin(2010)은 페이스북에서 제시하는 활동이 학습목적과 프로그램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설계를 할 경우에만 의미 있는 학습성과를 얻을 수 있으며, 학습환경 설계자와 교수자가 학습자의 성격유형, 자기조절학습능력, 인식론적 신념 등을 점검하여 학습자에게 적합한 지원을 제공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마지막으로 페이스북의 교수매체적 속성과 효과성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로 Davies(2012)는 학습자들의 문해(Literacy)능력 향상을 위한 도구로서 페이스북이 적합하다고 하였으며, Ryan, Magro 와 Sharp(2011)는 페이스북을 교육적 내용의 이해와 학습자간의 문화적 차이를 적응하는데 적합한 도구로 보았고, McCarthy(2010)는 대학 신입생과 교환학생이 페이스북을 통해 교류함으로써 오프라인보다 쉽게 사회적 관계를 맺는다고 하였다. Shih (2013)는 페이스북을 대학 영어수업에서 보조학습도구로서 활용한 결과 학습자의 영어쓰기 및 어휘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았고, Lam (2012)은 홍콩에서, de Villiers, M. R.(2010)은 남아프리카에서 각각 페이스북을 활용한 외국어학습을 진행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국내에서는 강숙희(2012)가 페이스북은 학습자들에게 활발한 토론과 상호작용을 도와주며, 친근감과 소속감을 가지는데 적합한 도구라고 하였고, 강명희, 한정선, 김진희(2012)는 대학 봉사과목에서 페이스북을 활용한 결과 학습자의 성찰일지 공유와 인지적 토론 참여도가 높아졌으며 학습자들은 인지적, 정의적 학습효과를 성취하였다. 이종연(2012)은 대학의 이러닝 프로젝트 학습 시 페이스북을 활용하였고 학습자가 인식한 만족도와 유용성은 긍정적이었으며 시대적으로 적절한 교육매체라는 결론을 내렸다. 페이스북은 학습자와 교수자의 상호작용과 협력, 친밀함 향상을 가능하게 해주었고 프로젝트에 관한 공지나 일정확인 등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효과적 매체였음을 강조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사이버대학교 정규과목 온라인 강의에서 보충학습으로 페이스북을 활용한 모바일 교수-학습모형을 설계하고 그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 소재 A사이버대학 2012년 2학기 '초급독해와 말하기'를 수강한 영어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실험 전 페이스북 모바일 보충학습 희망자 30명을 모집하였으며, 통제집단은 실험집단의 중간고사 점수, 성별, 나이를 고려하여 연구자의 임의대로 30명을 선정했다. 설문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하지 않은 학습자는 결과산출에 제외한 총 39명(실험집단 18명, 통제집단 21명)을 대상으로 데이터가 도출되었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동질성 검증을 거쳐 선택되었다 (자세한 검증결과는 결론에서 제시될 것이다)

<표1>은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학습자의 구성을 보여준다. 사전 설문조사 결과 두 집단의 인구학적 변인, 스마트폰과 SNS 친숙도, 모바일 러닝 경험 여부는 아래와 같다. 특히, 스마트폰 친숙도와 SNS 친숙도에서 실험·통제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집단 간 큰 차이는 없었다. 집단은 사이버대학 학습자들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바 직장을 학업과 병행하는 직장인이 90.48%로 이는 과거의 온라인-오프라인 혼합의 블렌디드 러닝은 제약이 있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연령대가 일반 오프라인 대학보다 높고 (30대 38.89%, 40대 16.67%) 모바일 학습에 대한 친숙도가 낮은 학습자들 (11.11%)도 존재하므로 모바일 학습을 적용할 때 좀 더 접근성이 용이한 매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진다고 하겠다. 즉, 매체활용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나 스마트 러닝에 대한 거부감을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향후 연구에서는 사전 설계 시에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표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분포 특성

구분		실험집단 (n=18)		통제집단 (n=21)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성별	남	4	22.22	5	23.81
	여	14	77.78	16	76.19
연령	20-29 세	8	44.44	10	47.62
	30-39 세	7	38.89	8	38.10
	40-49 세	3	16.67	3	14.29
직장	유	16	88.89	19	90.48
	무	2	11.11	2	9.52
모바일 친숙도	익숙함	12	66.67	11	52.38
	보통	4	22.22	10	47.62
	익숙하지 않음	2	11.11	0	0
SNS 친숙도	페이스북	6	11.11	8	38.09

2. 연구기간 및 절차

본 연구는 2012년 9월부터 10월까지 관련 문헌을 연구하고 기초자료를 준비하였다. 2012년 10월부터 11월까지는 페이스북/모바일 보충학습 교수-학습 모형 및 콘텐츠를 제작하였으며, 사전 설문지와 사전테스트를 개발하고 보충학습 지원자를 모집하였다. 이후, 연구 대상자들의 사전 연어능력 성취도와 흥미도 검사, 중간고사 성적 비교를 통해 동질성 여부를 검증하였으며, 실험집단에게 페이스북 사용 매뉴얼을 이메일로 배포, 연구자의 개별적인 전화와 문자피드백이 진행되었다. 2012년 11월 실험단계에서는 총 5주 동안 페이스북 모바일 콘텐츠 (학습콘텐츠와 심화과제)를 주3회(월 ·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수·금) 제공하였으며, 통제집단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즉, 두 집단의 학습자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내용과 형식으로 진행되는 '초급독해와 말하기' 온라인 수업을 들었지만, 실험집단에게만 추가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차이가 있다. 총 5주의 실험이 끝난 후, 사후 성취도와 설문지, 전화 심층인터뷰, 기말고사를 실시하였고, 2012년 12월 말부터 2013년 2월까지는 데이터 통계처리 웹사이트 분석 후 결론을 도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페이스북을 활용한 모바일 보충학습 효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3. 연구 도구

연구 도구는 A 사이버대학의 '초급영어독해와 말하기'교수-학습 콘텐츠의 동영상(Dialogue Clips)을 일부 재구성 하였으며, 웹 코퍼스인 WebCorp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연어패턴을 추출하여 문장을 만들었고, iMovie와 Windows Live 무비메이커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음성 녹음 및 동영상 제작을 함으로써 다양한 학습 콘텐츠을 통한 통합적인 언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모바일 학습에 관련하여 흥미도 및 인식도 사전·사후설문, 영어 연어능력 사전·사후성취도 평가, '초급독해와 말하기' 과목의 중간고사 점수가 사용되었다. 설문조사와 성취도 평가는 사이버대학 특성상 온라인으로 이루어졌으며, KSDC DB[2](조사·통계 데이터베이스 웹페이지)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개별 이메일과 카카오톡 메시지로 답변을 독려했다.

1) 사전·사후설문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페이스북을 활용한 모바일 보충학습 교수-학습모형의 학습자 인식 및 흥미 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McCarthy(2010)와 Shih(2011)의 설문지를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최종 반영된 사전 설문지는 총 39부(실험집단 18부, 통제집단 21부)로 회수율은 약 65%이다. 사전 설문의 구성은 크게 세 부분으로 1) 학습자 개인정보 2) 모바일폰 친숙도 및 사용정보 3) 모바일 학습에 관한 인식도 조사이며, 두 집단에게 동일한 문항이 주어졌다. 반면, 사후 설문지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게 다른 설문지를 주었는데 통제집단 학습자는 기존 사이버대학 학습방식대로 온라인 강의만 듣고 학습을 하였으므로 설문항목이 온라인 강의를 듣고 나타나는 인지적 향상 및 정의적인 특성을 알아내기 위한 내용으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실험집단은 페이스북 기반 모바일 학습이 적용되었으

[2] 한국사회과학 조사·통계자료 아케이브인 KSDC DB는 온라인 설문조사, 통계프로그램(빈도분석, t-test, ANOVA 등), 각종 통계수치 등을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http://www.ksdcdb.kr/main.do)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므로, 모바일 학습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내용이 추가되었다.

2) 사전 · 사후테스트

본 테스트는 페이스북 기반 모바일 학습으로 인해 학습자의 영어 연어활용능력 향상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진행되었다. 사전 · 사후 테스트에서 사용된 어휘 및 연어패턴은 '초급독해와 말하기' 과목의 정규 수업시간에 제시되었으며, 실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자연스러운 연어패턴을 보여주는 웹 코퍼스를 활용하여 출제하였다. 테스트는 총 3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학습자의 정확한 연어실력을 확인하기 위해 선택형 문제뿐 아니라 서답형 문제를 출제하여 연어능력 측정의 신뢰도를 높였다. 사후테스트는 사전 테스트의 동일한 문제를 순서만 재배열하여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사전 · 사후테스트에서 영어 연어활용능력만을 평가한 이유로는 1) 페이스북 기반 모바일 보충학습 콘텐츠(동영상, 듣기, 작문자료 등)가 어휘연어중심 접근법(Lexical Approach)[3]을 기저로 제작되었으며, 2) 어휘연어능력이 논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능력으로 전체적인 학습에 도움이 되므로 연어활용능력을 중점으로 측정하였다.

IV. 페이스북 기반 모바일 교수-학습모형 설계 및 구현

1. 사이버대학 정규과목 '초급독해와 말하기' 수업

A 사이버대학 '초급독해와 말하기'는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학습자의 찬 · 반 의견을 영어로 쓰고 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수업이다. 주제중심적인 강의개요를 채택하고 있으며, 하나의 주제를 2주에 걸쳐 학습한다. 첫 번째 주차에는 이해중심의 독해 및 듣기 활동 즉, 수용적 능력(Receptive skills)을 위한 학습을 하며, 두 번째 주에서는 첫 주차에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학습자가 직접 과업을 수행하면서 생산적 기술(Productive Skills)인 영어 말하기, 쓰기능력을 위한 학습이 진행하여 영어의 4기능(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과 어휘력을 통합적으로 학습(integrative learning)하도록 고안된 강의로 KERIS 최우수 원격대학 콘텐츠에 선정된 온라인 과목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간고사 이후 2012년 10월 9주차 강의부터 13주차(총 5주)에

[3] Lexical Approach(어휘 접근법)는 어휘(lexis)를 언어학습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고 개별어휘 혹은 어휘덩어리(lexical chunks)를 기본단위로 삼는다. 어휘 접근법의 대표적인 수업 모형으로 다량의 어휘목록(corpora)과 concordance program을 활용하여 어휘를 직접적으로 지도하며, collocations, 문맥에 따른 어휘의 사용 등을 학습하는 데 효과적이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걸쳐 총 3개의 주제(9주~10주: English Mania I, II, 11주~12주: Are you Online? I, II, 13주: Texting Etiquette)로 학습이 이루어졌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게 온라인강의가 동일하게 제공되었으나, 실험집단에게만 보충학습 형태로 페이스북 추가자료를 제공하였다.

2. 페이스북 기반 모바일 보충학습 모형 설계

페이스북 기반 모바일 보충학습은 SNS 중 페이스북(Facebook)에 업로드 되었는데, 페이스북의 편리한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기능, 스마트폰과 컴퓨터 간의 호환 가능이라는 장점은 페이스북을 학습도구로 사용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새로운 정보에 대한 즉각적인 '알림' 서비스는 기존 이러닝의 한계인 '피드백의 즉시성 부족' 및 '상호작용 부족'을 보완하였고 빠르고 적극적인 피드백으로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유도하였다.

본 연구는 페이스북 '그룹'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m-Learning at CUFS!'라는 그룹을 만들고, 연구자와 실험집단 학습자는 친구를 맺었으며, 그룹에 초대를 함으로써 그룹에 속한 멤버만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페이스북 콘텐츠의 경우, WebCorp이라는 웹 코퍼스와 동영상 편집도구인 iMovie와 Windows Live 무비메이커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목적에 맞게 수정된 구문으로 구성되었으며, 필수 어휘 및 연어패턴 학습을 듣기, 읽기, 쓰기 등 다양한 언어기능에 통합·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실험집단 학습자는 실험 초기 페이스북 사용매뉴얼을 지급받았으며, 연구자의 개별 카카오톡, 문자 및 전화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소통을 촉진하였다.

아래 <표2>는 페이스북 기반 모바일 보충학습 교수-학습절차를 나타낸 것으로, 연구자는 2012년 10월부터 주 3회(월, 수, 금요일)씩 총 5주(15번)에 걸쳐 페이스북 그룹페이지에 학습 콘텐츠와 과제를 1세트씩 업로드 하였다. 페이스북 학습 콘텐츠는 온라인 수업의 주제에 대해 영어로 찬반의견 표현을 목표로 듣기, 읽기, 쓰기, 연어어휘 학습활동을 통합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하였고, 학습자의 동기유발에 초점을 두었다. 과제의 경우, 과제 제출자의 댓글이 과제 미제출자의 과제수행에 방해·노출되지 않도록 페이스북의 '메시지' 기능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연구자에게 개별적으로 답을 보내면 연구자가 정답과 함께 짧은 코멘트를 주는 방식으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이는 Shih(2011)의 연구에서 선행학습자의 댓글로 인한 정답의 노출이라는 한계점을 극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 2
페이스북 기반 모바일 보충학습 교수 및 학습 절차

교수-학습 이론		구성주의, 자기 주도적 학습, 점진적 학습	
방법	실험집단	전통적인 온라인강의, 온라인강의 쓰기 과제, 모바일/페이스북 보충학습 (학습콘텐츠+과제)	
	통제집단	전통적인 온라인강의, 온라인강의 쓰기 과제	
주차 요일		교수-학습활동	
		실험집단	통제집단
1 월		사이버대학 온라인강의 동시시작	
	온라인강의	페이스북 보충학습	온라인강의
	개별학습	STEP 1(교수자): 페이스북 월요일 학습자료 업로드 STEP 2(학습자): 페이스북 개별학습 후 과제 메시지로 제출 STEP 3(교수자): 과제정답 및 피드백답장	개별학습 (추가조치 없음)
2 수		이하동일	
3 금		이하동일	

각 주제별 첫 주차 페이스북 학습에서 3번의 콘텐츠 진행흐름과 교수-학습모형은 아래 <표3>과 <그림1>에서 볼 수 있는데, 먼저 1) 월요일: Listen and Fill in the Blanks 활동으로 새로운 표현을 문장단위로 듣고 학습하며, 과제로 전체적인 내용의 이해를 위해 Dialogue 단위의 동영상을 보고 True/False Questions을 진행한다. 다음으로 2) 수요일: 주어진 연어표현을 사용하여 개별 문장단위의 통제작문(Controlled writing)을 하고, 과제로 개별문장의 오류를 찾아 바르게 고친다(Error-correction). 마지막으로 3) 금요일: 제시된 문단 내에 알맞은 연어표현을 구문단위(phrase-level)로 적고, 과제로 작문을 문장 단위(sentence-level)로까지 확장하여 수행하게 된다. 즉, 이와 같은 학습은 점진적 학습절차(Progressive Learning procedures)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학습이 진행될수록 학습영역이 다양하고 넓어지며 난이도가 높은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기존 지식의 범위를 확장하는 학습을 유도하였다. 두 번째 주차 학습은 첫 주차에 배운 이론적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찬반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구성된 활동들로 1) 월요일: 찬성 입장의 동영상을 보고 Fill in the Blanks를 한 뒤, 과제로 문장 내 오류를 찾아 수정(Error-correction)하는 과제를 수행한다. 2) 수요일: 반대 입장의 동영상을 보고 Fill in the Blanks와 오류 수정(Error-correction)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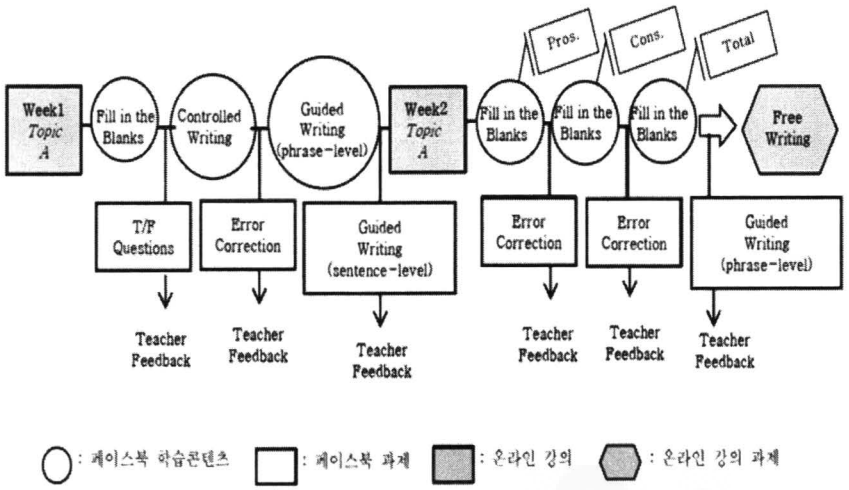
과제를 하고, 3) 금요일: 찬반의 입장을 모두 제시하는 동영상을 보고 Fill in the Blanks 학습 후, 문맥이 있는 문단에서 연어표현 구문단위(phrase-level) 영작하기 과제로 마무리한다.

표 3
페이스북/모바일 보충학습 제시자료

주차		제시자료		목표영역
		설명	예시	
1 (월)	학습 콘텐츠	Listen and Fill in the blanks	1. Save every penny for her son' s tuition. 2. He will be a perfect bilingual.	Receptive Skill (듣기)
	과제	True-False Questions	1. Korean parents want their children to start English Education as soon as possible. (T⁄F)	Receptive Skills (듣기, 읽기)
1 (수)	학습 콘텐츠	Controlled Writing w/ given collocation	1. 힌트: Every penny Q> 나는 돈을 철저하게 아끼기로 아내와 약속했다. A> I promised to save every penny to my wife.	Receptive Skill (읽기), Productive Skill (쓰기), English Collocation
	과제	Error-Correction	1. She does not seem to save many pennies for her wedding next year. A> She does not seem to save every penny for her wedding next year.	Receptive Skill (읽기), Productive Skill (쓰기)
1 (금)	학습 콘텐츠	Guided Writing (Phrase-Level)	1. 내 아내는 자녀교육에 집착한다. 나는 철저하게 돈을 아껴야한다. A>My wife is a little too obsessed with children' s education. I have to save every penny I can.	Productive Skill (쓰기), English Collocation
	과제	Guided Writing (Sentence-Level)	1. 나는 몇 달 동안 스마트폰을 위해 돈을 매우 아꼈다. 마침내, 어제 나는 최신스마트폰을…(중략) A>I saved every penny for a brand-new smart phone for months. Finally, I bought a new release smart phone ...	Productive Skill (쓰기), English Collocation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그림 1
페이스북 기반 모바일 보충학습 교수-학습 모형



V. 연구결과

1. 페이스북을 활용한 모바일 보충학습 교수-학습모형

본 연구에서 개발된 '페이스북 활용 모바일 보충학습 교수-학습모형'은 사이버대학 영어 온라인강의 '초급독해와 말하기' 수업내용을 바탕으로, 총체적인 언어(Whole language) 습득과 듣기, 읽기, 쓰기, 어휘 영역의 통합적 발달(integrative development)및 점진적인 학습(progressive learning)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페이스북 학습의 전체적인 흐름(flow)과 해당 활동에 적용된 영어 기능에 대한 정리는 <표4>와 같다.

표 4
페이스북 보충학습 흐름과 적용 언어기능

		페이스북 학습자료	목표영역
월	학습 콘텐츠	Fill in the Blanks(Sentence-level)	Receptive Skills(듣기, 읽기)
	과제	Video Watching & T/F Questions	
수	학습 콘텐츠	Controlled Writing w/ given collocations	Receptive skill (읽기) Productive skill (쓰기) English Collocations
	과제	Error-Correction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금	학습 콘텐츠	Controlled Writing(Phrase-level)	Receptive Skill(쓰기)
	과제	Controlled Writing(Sentence-level)	

2. 사전검사를 통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검증 분석

본 연구의 실험집단은 지원자로 구성하였으며, 통제집단은 실험집단의 중간고사 성적, 성별, 나이를 고려하여 유사한 학습자들을 선택하였다. 실험에 들어가기 앞서, 두 집단의 '초급독해와 말하기' 중간고사 성적 및 사전 연어능력 검사 결과에 대한 동질성 검사를 독립 표본 t-test 검정으로 실시한 바, <표5>와 <표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통계적으로 두 집단의 중간고사 및 어휘능력 성적은 각각 .088과 .198로 유사함을 알아냈다 ($p>0.05$).

표 5
'초급독해와 말하기' 중간고사 성적 차이 분석

구분	집단	평균(M)	표준편차(SD)	t	P
중간고사	실험집단	90.03	10.07	-1.770	0.088
	통제집단	85.29	5.70		

표 6
사전 영어어휘능력 차이 분석

구분	집단	평균(M)	표준편차 (SD)	t	P
사전어휘능력	실험집단	37.36	13.55	-1.311	0.198
	통제집단	31.74	13.14		

3. 사후검사를 통한 학습 효과성 검증 분석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 연어능력 검사결과에 대한 평균점수를 t-test 검정한 결과는 <표7>과 같다. p값이 .113으로 유의수준 .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보충학습으로서 모바일/페이스북 학습이 학습자의 어휘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표 7
사후 영어어휘능력 검사 평균차이 분석

구분	집단	평균(M)	표준편차 (SD)	t	P
사후연어능력	실험집단	55.78	25.37	-1.632	0.113
	통제집단	43.74	19.8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연어능력검사 결과에서 두 그룹 간 실력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고 나왔으나, 실험집단 내 사전·사후검사 평균이 37.36점에서 55.78점으로 18.42점 향상하였고 통제집단 평균은 31.74에서 43.74점으로, 통제집단의 12점 향상보다는 실험집단이 다소 높은 향상을 보였다.

4. 실험집단의 정의적 속성 문항 기술 통계치 분석

아래 <표8>은 페이스북 보충학습이 학습자에게 정의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기 위한 문항들의 기술 통계치를 보여주고 있다. 실험집단 학습자는 페이스북을 통한 모바일 보충학습이 '기존의 사이버대학 강의보다 유익하고 흥미로웠다'(평균 4.0), '영어 말하기 및 연어활용에 관심이 생겼다'(각 평균 4.0), '영어어휘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평균 3.72)고 응답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영어 말하기 및 어휘활용에 자신감이 생겼다'거나(평균 3.56) '영어말하기 실력향상에 도움이 되었다'(평균 3.44)는 응답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페이스북 보충학습 초기(9주차) 너무 어렵고 많은 양의 콘텐츠와 과제를 제공한 것이 직장인 학습자에게 큰 부담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10주차부터는 학습자 의견을 반영하여 난이도를 낮게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처음에 정의적 부담을 느낀 학습자는 계속 학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콘텐츠의 난이도 및 적정량 조절 및 지속적인 격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8
실험집단의 정의적 문항 기술 통계치

	실험집단 (n=18)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1. 영어말하기 향상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3.44	0.70	0.22	0.20
2. 영어 어휘능력 향상에 도움 되었습니까?	3.72	0.67	0.38	-0.56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3. 기존 사이버대학 수업보다 유익하고 재미있었습니까?	4.00	0.77	-♪.88	1.72
4. 영어말하기 및 어휘활용에 자신감이 생기셨습니까?	3.56	0.78	-0.62	0.15
5. 영어말하기 및 어휘활용에 관심이 생기셨습니까?	4.00	0.77	-0.01	-1.19

5. 실험집단의 페이스북 보충학습 행태

1) 학습자들의 페이스북 보충학습 접속방법 및 접속장소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실험집단 총 18명 중 16명(88.89%)은 직장인으로 간단하고 편리한 학습을 선호하여 학습자의 55.56%는 스마트폰으로, 38.89%는 컴퓨터를 통해 학습하였으며, 접속장소로는 학습자의 44.44%는 자택에서, 33.33%는 이동 중 교통수단이었다. 초기 콘텐츠 제작 당시, 연구자는 페이스북 학습 도구로서 스마트폰 사용을 의도하였으나, 일부 활동('듣고 받아쓰기')에 있어서 동영상 감상과 댓글 쓰기 기능을 동시에 할 수 없고 창이 전환되는 불편함 때문에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함께 활용한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모바일 학습 콘텐츠를 제작할 때, 해당 도구의 특성을 잘 숙지하고 학습자가 다른 학습도구로의 전환 없이 최대한 한 번에 그 자리에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할 것을 암시하고 있다.

2) 학습자들의 페이스북 보충학습 활용용도

실험집단 학습자 44.44%은 예습과 복습 모두를 위해 페이스북 보충학습을 하였으며, 38.89%는 기말고사가 되기 전 한꺼번에 필요한 부분을 개별적으로 학습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매주 보내주는 콘텐츠를 당일 바로 학습한 학습자는 22.22%에 그쳤으며, 50%는 주말에 몰아서 한꺼번에 학습하였다. 월·수·금 매주 3번씩 받는 콘텐츠의 빈도가 너무 잦고 제 시간에 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학습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다는 응답이었으며, 바쁜 직장인 특성상 주중에는 시간이 나지 않고 주말에 한꺼번에 학습한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3) 학습자들의 페이스북 보충학습 내 가장 만족하는 활동순위

페이스북 보충학습 콘텐츠는 제시된 어휘연어표현을 최대한 다양한 방법과 활동으로 제시하는 데 초점을 두고 제작되었다. 페이스북 프로그램을 모바일이나 컴퓨터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학습하기에 가장 만족스러운 활동은 '어휘와 연어학습', '원어민 동영상 반복보기', '오류 수정하기', '통제 작문',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듣고 받아쓰기' 순이었다. 이중에서 '듣고 받아쓰기' 활동이 가장 선호도가 낮은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불편한 인터페이스의 지적을 받았으며, '오류 수정하기'나 '통제 작문' 활동은 해당주차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기 전 예습으로 진행할 경우 어렵다고 느껴지므로 예습이 아닌 복습을 위한 활동으로 적합할 것이라는 응답자도 있었다.

4) 학습자들의 페이스북 보충학습 및 과제제출 여부

페이스북 보충학습은 사이버대학 '초급독해와 말하기' 수업에서 강제적으로 반드시 수행해야 할 과제형태의 학습이 아니라 보충학습의 개념으로 학습자에게 자율성을 주어 진행하였다. 격려차원의 피드백과 안내사항에 대한 카카오톡 피드백에도 불구하고 학습 콘텐츠를 모두 학습하고 모든 과제를 제출한 참여한 참여자의 비율은 매우 낮았다(27.78%). 이는 윤영민 (2011)이 제시한 페이스북 학습의 성공요인 중 '학습평가의 재설계' 부분에서 본 연구의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는데, 페이스북 학습은 수업 전반에 걸친 평가와 적절한 평가요소가 수반되었을 때 학습자의 참여도가 높아지므로, 평가 시 '수업참여도'와 '기여도' 요소를 포함하고 학습결과뿐만 아니라 학습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함을 암시하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닝과 다양한 SNS를 혼합하는 시도를 하되 평가와 학습의 연계가 이루어 진다면 더욱 효과적인 블랜디드 학습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 학습자는 페이스북의 사용법을 모르거나 페이스북 기능상 불편함으로 어려움을 표하였는데, 이는 이종연(2012)의 연구결과와 매우 유사하며, SNS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과 사생활 공개 거부로 학습 자체를 포기했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또한 보충학습 콘텐츠는 매주 3번 학습 콘텐츠와 과제의 세트로 제공되지만, 한 번 학습의 흐름을 놓치게 되면 부담감이 매우 크며 따라잡기 힘들다는 응답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 SNS를 학습에 적용하는 과목이 많지 않는 단계여서 향후 스마트러닝의 적극적인 교육적 활용이 증가된다면 일부 학습자들의 스마트 러닝에 대한 거부감은 개선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페이스북 학습의 교육적 가치

학습자들은 페이스북 보충학습에서 콘텐츠의 반복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을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일주일에 3번씩 다양한 활동으로 어휘를 반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학습자는 자연스럽게 해당 어휘 및 연어표현에 노출이 되고 예·복습에 큰 도움을 받았다는 응답이었다. 다음으로 학습자는 어휘의 용례가 다양하게 제공되어 만족스럽다고 하였는데, 웹기반 코퍼스의 활용으로 학습자에게 실생활에 쓰이는 직접적인 용례를 보여줌으로써 자연스러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영어 표현에 도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또한 '듣고 받아쓰기' 활동을 제외한 나머지 활동(원어민 동영상 반복보기, 오류 수정하기 등)은 출퇴근 이동 시간에 스마트폰으로 쉽고 편리하게 학습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응답했다. 마지막으로 학습 초기 페이스북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던 학습자들이 연구자의 피드백과 도움으로 학습이 편해졌다고 하였으며, 교수자의 상호작용으로 학습동기가 유발되었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강명희, 한정선, 김진희(2012)와 김도헌(2011), Jin(2009)의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와 유사하며 온라인 학습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상호작용의 부재와 동기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의 페이스북을 활용한 블랜디드 교수-학습 설계가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주관식 설문요인 응답유형>

"그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반복해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는데 한 주에 세 번씩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수업내용이 기억에 오래 남는다."

"몰랐던 어휘나 색다른 용어가 다양하게 있어 유익하였다."

"튜터님과 교수님의 지속적인 follow-up 덕분에 친밀감도 더 생기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7. 페이스북 학습의 제한점

페이스북 보충학습의 가장 큰 단점은 페이스북 내 불편한 기능이었다. 페이스북 콘텐츠에 댓글을 남기게 될 경우 해당 콘텐츠가 가장 먼저 표시되어 순서가 엉킨다는 불만이 가장 많았다. 이는 박미현 외 4명(2010) 연구에서 지적한 페이스북 페이지 구성문제와도 일치하며, 연구자가 매번 댓글의 순서를 조정하여 콘텐츠 순서가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함을 나타내었다. 또한, 앞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동영상을 보고 난 뒤 댓글을 달거나 과제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화면이 전환되므로 휴대폰 내에서는 한꺼번에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나일주(2011)를 비롯하여 이명숙, 손유익(2011), 조윤경(2011), 성진희, 전주성(2012)은 SNS가 교수매체로서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협동학습'에 용이하며, '학습자와 교수자의 상호작용을 촉진'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간의 협동학습이라던가 학습자와 교수자의 빠른 피드백이 부족했다. 실험 초기 연구자는 과제 피드백(정답)을 주는 데 평균 1~2일이 걸렸으며, 학습자가 답변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흥미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적절한 시기에 바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SNS의 속성을 잘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Shih(2011)의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SNS가 교수자에게 과도한 업무량을 준다는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이러한 결과는 향후 SNS 학습설계 시 페이지구성, 과제와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활동들이 정교하게 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좀 더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하여서는 답글이나 실시간 접근성 및 확인이 용이한 SNS 매체를 선택하는 사전 점검 단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사이버대학의 경우는 학습자들의 연령이 30대나 40대가 많은 만큼(본 연구의 대상자의 경우, 30대는 38.1%, 40대는 14.29%) 혁신기술에 대한 적응도가 오프라인대학생들보다 보수적일 가능성이 존재하며 이는 페이스북보다 사용이 용이한 SNS(카카오톡 등)매체를 비교 실험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주관식 설문요인 응답유형>

"페이스북에서 실행되다보니, 누군가가 댓글을 달게 되면 그 글이 제일 위로 올라가서 주차별 학습시 불편했습니다. 또한 메시지를 보내기가 휴대폰에선 조금 불편했어요."

"튜터님께서 정말 많이 독려해주시고 공지사항도 알려 주신 점은 감사하지만, 제 때 피드백을 받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습니다. 즉각적인 피드백이 없으니 오류 수정도 되지 않아서 학습 후반부가 되어갈수록 의욕이 상실되었습니다."

Ⅵ. 결론 및 제안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대학 온라인 강의에서 페이스북을 보충학습도구로 활용하는 교수-학습모형을 설계하고, 학습자의 인지적·정의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A 사이버대학 '초급독해와 말하기' 수강생을 대상으로 통제집단 18명, 실험집단 21명 총 39명으로 5주간 실험을 실시하였다. 두 집단은 동일한 온라인 강의를 들었으나, 실험집단에게만 추가적으로 페이스북을 활용한 보충학습(학습콘텐츠와 과제)을 온라인-페이스북 혼합학습의 형태로 3회(월·수·금)에 걸쳐 제공하였다.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통제집단과 실험집단 학습자들에게 어휘활용능력 사전·사후테스트를 실시하였고, 정의적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해 사전·사후설문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는 최초의 원격대학의 SNS활용 실험사례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제한 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 실험은 모두 지원자를 대상으로 수행하였고, 이미 학습 동기 가 높은 상태로 참여한 것으로 보여, 이러한 요인이 수업 만족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반적인 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이러닝 학습환경에서 온라인-SNS 블랜디드 교수-학습모형은 페이스북을 활용한 보충학습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어휘학습 접근법(lexical approach)을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기저로 하여 주요 언어기능(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의 통합적 학습(integrative learning)과 점진적 학습(progressive learning)의 원리를 반영하여 설계하였다.

둘째, 실험집단의 사후 어휘활용능력 평가결과, 통제집단과 비교하여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그 이유로는 사이버대학 학습자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페이스북 활용학습이 필수과제가 아닌 보충학습으로 제시되어 학습의 강제성이 없었다는 점에 기인한다. 실험집단 학습자는 연구자의 격려와 피드백에도 불구하고 학점평가와 연계가 되지 않아 초기의 의욕과 달리 페이스북 학습을 진행하고 과제를 제출하고자 하는 동기가 약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향후 온라인 강좌에서의 스마트러닝은 학점평가에 반영하여 학습참여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정의적인 측면에 있어, 페이스북을 통한 보충학습이 기존의 사이버대학 강의보다 유익하고 흥미로웠으며, 영어 말하기 및 연어 활용에 관심이 생겼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는 온라인강의에 페이스북을 활용한 것 자체에 대한 흥미와 함께, 빈번하게 해당 어휘와 표현에 자주 노출됨으로써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겼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페이스북 학습이 학습도구로 유용함을 의미하며, 강명희, 한정선, 김진희(2012)와 김도헌(2011), Jin(2009)의 연구에서 도출한 SNS의 긍정적인 효과와 일치한다. 또한 이러닝 영어환경의 한계로 지적되어온 상호작용과 동기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서의 이러한 설계가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단지, 학습의 높은 난이도와 많은 학습량이 학습자에게 부담감을 준 사실이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최대한 간단하고 짧은 내용의 콘텐츠를 자주 반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매체접근성과 이용용이성을 비교분석하고, 다양한 학습활동 (과제, 피드백, 등)이 사전 점검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넷째, 설문에서는, 일부 학습자들이 페이스북의 복잡한 사용법과 기능상의 불편함으로 인한 어려움을 표하였다. 또한, SNS에 대한 거부감과 사생활 공개의 문제로 학습 자체를 포기했다는 응답자도 있었다. 때문에 추후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사용매체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충분한 훈련과 적응시간을 주어야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해당 사이버대학에서도 처음 시도되는 SNS 적용 영어 혼합학습으로, 초기에는 설계적인 오류들이 불가피하게 발견되었다. 그러나, 페이스북 활용 학습은 온라인 강의만 진행했을 때와 비교하여, 의사소통, 상호작용, 교수자와 학습자의 실재감에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이는 과거 이러닝-오프라인 혼합학습이 지닌 사이버대학 학습자들의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온라인-SNS 혼합학습의 잠재력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즉, 본 연구는 페이스북을 활용한 혼합 교수학습방안을 실험을 통해 제시하면서 문제점과 아울러 발전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추후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연구에서는 신속한 피드백과 용이한 접근성을 고려한 다양한 SNS의 교수 매체적 성격을 비교하고 이러닝 영어학습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어플리케이션을 발견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은 이러닝의 혁신을 향한 실험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의미하며 이는 이러닝 환경 하에서도 학습자가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협동하여 집단지성을 창출하고, 동시적인 피드백을 통해 학습동기를 유발 할 수 있는 학습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명희, 한정선, 김진희. (2012). 대학 봉사학습 과목에서의 페이스북 활용 효과. *교육방법연구, 24*(4), 771-796.

강숙희. (2012). 비실시간 온라인 토론에서 학습양식과 매체환경에 따른 예비교사들의 토론 참여 양상 분석. *한국교원교육연구, 29*(1), 257-282.

강인애, 임병노, 박정영. (2012). '스마트 러닝'의 개념화와 교수학습전략 탐색: 대학에서의 활용을 중심으로. *교육방법연구, 24*(2), 283-303.

권성연. (2011). 온라인 학습에서 사회적 실재감과 학습자 특성, 토론효과 및 학습효과 인식, 만족도와의 관계 연구. *교육과학연구, 42*(3), 55-82.

김가람. (2012). 한국어 학습자의 페이스북 사용양상에 대한 연구. *한국언어문화학, 9*(2), 95-117.

김규동, 고유정, 최고은, 박인우. (2012). 이러닝에서 교수실재감, 학습참여도, 학습자-교수자 간의 상호작용 및 학업성취도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18*(1), 169-188.

김도헌. (2011). 소셜미디어 시대의 기업 학습관 및 인재육성전략에 대한 성찰과 탐색. *한국성인교육학회, 14*(4), 91-117.

김선진. (2007). 웹 2.0의 등장으로 인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와 함의. *정보과학회지, 25*(10), 12-15.

김정주, 임지연. (2010). 원격교육기관에서 사회적 실재감과 학습성과의 관계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16*(1), 1-24.

김월선. (2012). *소셜 러닝을 활용한 웹프로그래밍 수업 운영 방법의 설계 및 평가.*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서울.

나일주. (2011). 소셜 네트워크와 교육: 그 가능성과 과제. 2011년 *한국교육정보미디어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집*. 1-14.

박미현, 전유리, 김유솔, 신윤지, 노승용. (2010). 여대생들의 SNS와 소통. *여성연구논총, 25*, 43-74.

박혜정, 김지영. (2011). 트위터를 활용한 영어쓰기 학습이 대학생들의 영어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 14*(3), 245-264.

방미향. (2007). 웹의 진화 원칙에서 도출해 낸 차세대 e-learning 콘텐츠의 발전 모델 제안. *한국콘텐츠학회 2007 추계 종합 학술대회 논문집, 5*(2), 719-723.

성진희, 전주성. (2012). 소셜러닝을 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교수 매체적 속성 탐색 연구. *평생교육학연구, 8*(3), 31-55.

윤영민. (2011). 페이스북 강의로, 교수와 학생은 절친이 된다. *공무원 HRD, 60*, 58-65.

임걸. (2010). 스마트 폰 기반 사회네트워크 서비스 활용수업 사례연구: 의사소통 내용 및 도구적 특성 분석을 중심으로. *교육방법연구, 22*(4), 91-114.

이명숙, 손유익. (2011).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활용한 안드로이드기반 협동학습시스템 설계 및 구현. *한국컴퓨터교육학회, 14*(5), 71-79.

이상수, 강정찬, 오영범, 이유나. (2011).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참여 동기 분석에 기초한 소셜 네트워크 기반 학습 설계 원리. *교육방법연구, 23*(3), 729-744.

이종연. (2012). 대학에서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한 학습 커뮤니케이션 사례연구. *사회과학연구, 25*(1), 93-123.

장은지. (2011). *SNS기반 학습환경에서 과제 유형이 대학생들의 영어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서울.

장진원. (2011). *소셜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기주도적 학습모형.*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전.

조세경.(2011). 소셜네트워킹 사이트와 외국어 학습. *한국멀티미디어언어교육, 14*(3), 315-334.

조윤경. (2011). *페이스북 기반 소셜러닝(Social Learning) 학습환경 설계.*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진현승. (2011).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활용한 대학수업에서 학습자가 지각한 유용성과 태도, 자아효능감이 학습몰입과 학습실재감에 미치는 영향 - 페이스북(Facebook)을 중심으로.* 미출간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서울.

차승봉. (2011). *대학생의 Social Network Service 참여와 학습성과에 관한 구조방정식모델.* 미출간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서울.

Balcikanli, C. (2012). Language learning in second Life: American and Turkish students' experiences. *Turkish Online Journal of Distance Education-TOJDE, 13*(2), 131-146.

Bingham, T. & Conner, M. (2010). *The new social learning: A guide to transforming organizations through social media.* California: Berrett-koehler Publisher.

Chen, B. &Bryer, T. (2012). Investigating instructional strategies for using social media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in formal and informal learning. *The International Review of Research in Open and Distance Learning, 13*(1), 87-104.

Davies, J. (2012). Facework on Facebook as a new literacy practice. *Computers & Education, 59*(1), 19-29.

De Villiers, M. R. (2010). Academic use of a group on Facebook: Initial findings and perceptions. *Proceedings of the Informing Science and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Conference*, 173-190.

Fewkes, A. M. & McCabe, M. (2012). Facebook: Learning tool or distraction?. *Journal of Digital Learning in Teacher education, 28*(3), 92-98.

Harrison, R. & Thomas, M. (2009). Identity in online communities: Social networking sites and language lear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Emerging Technologies & Society, 7*(2), 109-124.

Horton, W. K. (2001). *Leading E-learning.* Alexandria, VA: American Society for Training and Development.

Hsu, Y. C. & Ching, Y. H. (2012). Mobile micro-blogging: Using Twitter and mobile devices in an online course to promote learning in authentic contexts. *The International Review of Research in Open and Distance Learning, 13*(4), 211-227.

Junco, R.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frequency of Facebook use, participation in Facebook activities, and student engagement. *Computers & Education, 58*(1), 162–171.

Kabilan, M. K., Ahmad, N., &Abidin, M. J. Z. (2010). Facebook: An online environment for learning of English in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The Internet and Higher Education, 13*(4), 179-187.

Kearsley, G. (2000). *Online education: Learning and teaching in cyberspace.* Belmont, Calif.: Wadsworth Thomson Learning.

Lam, L. (2012). An innovative research on the usage of Facebook in the higher education context of Hong Kong. *The Electronic Journal of e-Learning, 10*(4), 377-386.

Lampe, C., Ellison, N., & Steinfield, C. (2008). Changes in participation and perception of Facebook. *Proceedings of ACM Conference on Computer Supported Cooperative Work*, 721-730.

Lee, M. J. W., & McLoughlin, C. (2009). *Web 2.0-Based e-Learning: Applying social informatics for tertiary teaching.* USA: Information Science Publishing.

Levy, Y. (2007). Comparing dropouts and persistence in e-learning courses. *Computer & Education, 48*(2), 185-204.

McCarthy, J. (2010). Blended learning environments: Using social networking sites to enhance the first year experience. *Australasian Journal of Educational*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Technology, 26(6), 729-740.

Parker, A. (2003). Identifying predictors of academic persistence in distance education. *United States Distant Learning Association Journal, 17*(1), 55-62.

Picard, R. W. (1997). *Affective computing*. Cambridge, MA: MIT Press.

Ractham, P., & Firpo, D. (2011). Using social networking technology to enhance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A case study using Facebook. *Proceedings of the 44th Hawaii International Conference on System*1-10.

Romiszowski, A. J., & Mason, R. (1996).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In D.H. Jonassen (Ed.), Handbook of research for educational communication and technology, New York: Macmillan Library Reference, 438-456.

Ross, C., Orr, E. S., Sisic, M., Arseneault, J. M.,& Simmering, M. G.(2009). Personality and motivations associated with Facebook us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25*(2), 578–586.

Ryan, S.D., Magro, M. J., & Sharp, J. H. (2011). Exploring educational and cultural adaptation through social networking sites.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Education: Innovations in Practice, 10*, 1-16.

Shih, R. C. (2011). Can Web 2.0 technology assist college students in learning English writing? Integrating Facebook and peer assessment with blended learning. *Australasian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27*(5), 829-845.

Shih, R. C. (2013). Effect of using Facebook to assist English for business communication course instruction. *TOJET: The Turkish Online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12*(1), 52-59.

Swan, K., & Shih, L. F. (2005). On the nature and development of social presence in online course discussions. *The Sloan Consortium, 9*(3), 115-136.

Thomas, M. (2009). The use of web 2.0 technologies in E-Learning: Implications and opportunities. *Proceedings of the WebSci'09: Society On-Line,* 18-20.

Yeun, S. C. Y., & Yeun, P. (2008). *Web 2.0 in educ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Society for Information Techonology and Teacher Education, Las Vegas, Nevada.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Secondary

김희진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 대학원
Email: hijean@cufs.ac.kr

곽정아
130-791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Email: victoria48@cufs.ac.kr

Received in October 15th, 2013
Reviewed in November 26th, 2013
Revised version received in December 5th, 2013

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